

낮은 자리에서 찾는 마음의 행복

김인순 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아직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며 몇 자 적어봅니다.

암이라는 중한 병으로 투병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봉사자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발을 씻겨드리며, “힘내세요” 하면 오히려 고마운 눈빛으로 감사의 말을 전해옵니다.

그러면 나는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여 헛웃음을 짓지요.

칭찬이 낫설기보다 작은 일에 너무 크게 고마워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순수한 마음에 내가 하는 봉사에 대해 좀 더 진솔하게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나의 언행으로 마음 상하지 않을지…… 봉사하기에 적합한 내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보니 행동이 굼뜨고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도 말은 많아지고 별일 아

닌 것에 섭섭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때로는 잘한 답시고 하는 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노하우를 늘어놓으며 젊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점은 고쳐나가며 여러가지로 부족한 나의 허물을 되돌아볼 것이며 또한 답답하고 고집 센 늙은이가 되지 않도록 주위 모든 것을 한층 더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에 잘 마른 빨래처럼 울적하고 외로운 환자분들의 구석구석을 보송보송하게 말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체나이만 70의 중반 노인이 아닌 안팎으로 성숙한 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쓸모가 적은 것이 아니라 곰삭아서 오히려 귀한 호스피스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내가 낮아지면 내 마음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봉사하는 삶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인순님은 호스피스봉사를 통해 생명의 귀함을 마음에 새기며 텃밭의 잡초마저 너무도 귀하게 여겨져 뽑기를 주저하게 되었다고 수줍게 생활의 변화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서 어머니 같은 넓은 사랑을 전하고 계시며 발 반사 마사지에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글쓰이의 승낙을 얻어 이 글을 올립니다.